

여호수아서

제 3 강

지파들의 기업

역자: 이창배 (Ph.D., UCLA)

후원: 이응 (Pastor)



thirdmill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7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copyright ©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ABOUT THIRDMILL

Founded in 1997, Thirdmill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mill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mill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여호수아서(The Book of Joshua)

제 3 강 지파들의 기업(Tribal Inheritances)

목차(Contents)

I. 서론(INTRODUCTION)	1
II. 초기 경계(INITIAL BOUNDARIES).....	2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3
1. 요단강 서편의 경계(Boundaries in Cisjordan)	4
2. 요단강 동편의 경계(Boundaries in Transjordan)	4
B.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5
1. 하나님의 권위(Divine Authority)	6
2. 하나님의 언약(God's Covenant)	6
3. 모세 율법의 규정(Standard of Moses' Law)	7
4.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God's Supernatural Power).....	8
5. 온 이스라엘(All Israel).....	8
III. 구체적인 기업 분배(SPECIFIC ALLOTMENTS)	9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9
1. 서두 요약(Opening Summary)	11
2. 결미 요약(Closing Summary).....	11
3. 유다(Judah)	12
4. 에브라임과 므낫세(Ephraim & Manasseh)	13
5. 나머지 지파들(Minor Tribes).....	14
6. 레위(Levi)	15
B.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16
1. 하나님의 권위(Divine Authority)	16
2. 하나님의 언약(God's Covenant).....	17
3. 모세 율법의 규정(Standard of Moses' Law)	17

4.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God's Supernatural Power).....	18
5. 온 이스라엘(All Israel).....	20
IV. 거국일치(NATIONAL UNITY).....	20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21
1. 제단 건축(Construction of Altar).....	21
2. 전쟁 위협(Threat of War).....	21
3. 대면(Confrontation).....	22
4. 위협의 종결(Cessation of the Threat).....	22
5. 제단의 명칭(Naming of Altar).....	22
B.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23
1. 하나님의 권위(Divine Authority).....	23
2. 하나님의 언약(God's Covenant).....	23
3. 모세 율법의 규정(Standard of Moses' Law).....	24
4.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God's Supernatural Power).....	25
5. 온 이스라엘(All Israel).....	25
V.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26
A. 개시(Inauguration).....	26
B. 지속(Continuation).....	29
C. 완성(Consummation).....	30
VI. 결론(CONCLUSION).....	32

여호수아서(The Book of Joshua)¹

제 3 강 지파들의 기업(Tribal Inheritances)

I. 서론(INTRODUCTION)

큰 가업의 사장이 나이가 들어 늙게 되자 그는 자기의 다섯 아들이 경영권을 물려받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들을 중앙 사무실로 불러서 회사의 법적 지분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며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너희는 각자 우리 가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 모두는 전과 다르게 각자 맡게 될 자기 자리에서 회사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여러 면에서 이와 똑같은 일을 했다. 그는 자기 없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의 기업을 분배하고 전과 다르게 그들이 함께 일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강좌의 세 번째 강의이다. 이 강의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기업”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주요 부분(13-22 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약속의 땅의 상속자로 함께 살아야 할 것을 요구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전 강의들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원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여호수아서는 후세대들이 직면한 유사한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승리의 정복, 지파들의 기업, 언약의 충성에 관해 기록되었다.

¹ **Dr. Seth Tarrer (Host)** is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Biblical Languages at Knox Theological Seminary. Dr. Tarrer received his M.Div. from Beeson Divinity School and his Ph.D. from University of St. Andrews. He is a member of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and has taught at seminaries in Buenos Aires, Argentina, and Medellin, Colombia. He is the author of *Reading with the Faithful: Interpretation of True and False Prophecy in the Book of Jeremiah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Eisenbrauns, 2013).

여호수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원래 청중은 적들을 물리치고, 지파들의 기업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대한 언약적 충성을 새롭게 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각 영역에서 원래의 청중을 인도하기 위해 여호수아서를 썼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호수아서는 세 개의 주요 부분, 즉 이스라엘의 승리의 정복(1-12 장), 지파들의 기업(13-22 장), 이스라엘의 언약적 충성(23-24 장)으로 나뉘어 전개된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두 번째 주요 부분이 전하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분배된 기업을 탐구할 것이다.

크게 보면, 여호수아서의 이 부분(13-23 장)은 세 가지 주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수 13:1-14 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기업의 초기 경계로 시작된다. 그런 다음 그것은 수 13:15-21:45 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분배된 구체적인 기업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것은 수 22:1-34 에 나오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거국일치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이 개요에 따라 우리는 이 세 가지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을 탐구할 것이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주요 부분(13-22 장)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성찰로 마무리할 것이다. 그럼 먼저 첫 단계, 즉 이스라엘 기업의 초기 경계(수 13:1-14)를 살펴보자.

II. 초기 경계(INITIAL BOUNDARIES)

이전 강의에서 보았듯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된 넓은 지역의 땅을 분배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부르심의 특별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이지만, 저자는 또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그들의 족장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을 모두 받지 못했다는 것도 인식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발판, 곧 그것의 일부에 강력한 존재감을 주셨을 뿐이다. 그러나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초의 경계 안에 있던 땅을 확인하고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기 경계에 대한 이 기록(수 13:1-14)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그것의 기본적인 구조와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그것의 원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그것의 구조와 내용을 고찰해보자.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이 단락(수 13:1-14)은 두 개의 에피소드로 나뉜다. 첫째로, 수 13:1-7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곧 시스조든(Cisjordan)의 이스라엘 땅의 경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로, 수 13:8-14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곧 트랜스조든(Transjordan)의 이스라엘 땅의 경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여호수아서의 이 부분에 접근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기업의 경계에 관한 약간의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창 15:18-21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서쪽으로 "애굽의 와디(the Wadi of Egypt)"까지 뻗어나갈 땅을 약속하셨다. ("강" 혹은 "시내"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와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일강의 동쪽 지류이거나 오늘날 나일강의 동쪽에 여전히 존재하는 와디 엘 아리시(Wadi El-Arish)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은 북동쪽으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땅 끝까지 전파할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의 땅은 다윗 왕국 시대까지 이러한 경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의 일부, 곧 요단강 양편에 있는 땅만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여호수아서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 땅에 안전하게 정착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첫 걸음이었다.

(더글라스 스튜아트[Douglas Stuart] 박사)²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백성이 올 것이며, 그 백성이 지상에 복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실

² Dr. Douglas Stuart is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열쇠이다. 그들은 마침내 이집트를 떠나 그 땅을 얻었을 때 자신들이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백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상에 한 장소를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 땅은 그들 스스로 얻은 것도 아니고 차지할 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약속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그분의 확실한 계획에 따라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다.

1. 요단강 서편의 경계(Boundaries in Cisjordan)

요단강 서편의 경계에 관한 첫 번째 에피소드(수 13:1-7)는 12 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영토의 목록을 기반으로 한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사실과 "얻을 땅이 아직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수 13:1 로 시작된다. 이 남은 땅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과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었다. 수 13:6 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 주민들을] 쫓아내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수 13:7 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밀고 나가며 가나안 전체를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2. 요단강 동편의 경계(Boundaries in Transjordan)

두 번째 에피소드(수 13:8-14)에서 저자는 요단강 동편(트랜스조던)의 땅의 외부 경계를 설명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최초의 기업에 대한 스케치를 완성했다. 저자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영토를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었다는 설명(수 13:8)으로 시작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초기 기업은 남쪽으로는 모압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까지 확장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수 13:13 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과 같은 일부 그룹을 아직 쫓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지역 전체를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기업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포괄하기 위해 저자는 또한 수 13:14 에 나오는 삽입적 설명을 통해

레위 사람들이 기업을 받았지만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라고 말했다.

(툼 페터[Tom Petter] 박사)³ 여호수아서의 지리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땅의 경계는 특히 산들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산들은 성지가 될 땅의 경계를 이루므로, 경계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표나 교차점이 된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점은 전통적으로 헤르몬산이다.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는 산들, 특히 남쪽에 있는 에돔의 산들 그리고 모압과 바산의 산들과 고원과 산악 지대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현대의 요르단 전역(요르단 북부에서 요르단 남부까지)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땅의 동쪽 경계를 이룬다.

이스라엘의 기업의 초기 경계를 묘사하는 부분(수 13:1-14)의 기본 구조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그것의 원래 의미를 짚어볼 수 있게 되었다. 왜 저자는 역사의 이 단계에서 이스라엘의 기업에 대한 스케치로 책의 두 번째 주요 부분(13-22 장)을 시작했는가?

B.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바빌론 유수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토를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갈등, 그 땅에 남아있는 다른 민족들이 일으키는 어려움, 사막 부족의 공격, 결국 애굽과 앗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의 파국적인 침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장악력은 반복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영토의 범위를 청중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저자는 이 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적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더

³ Dr. Tom Petter is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많은 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모든 나라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의 청중에게 이스라엘의 기업의 초기 경계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기 위해, 저자는 책의 앞 부분에서 강조했던 다섯 가지 주제를 이 단락에도 포함시켰다.

1. 하나님의 권위(Divine Authority)

첫째로, 저자는 하나님의 권위가 이스라엘의 기업을 어떻게 확립했는지를 지적했다. 그는 수 13:1 에서 요단강 서편에 대한 그의 초점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그리고 수 13:6 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알려주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권위는 또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의 경계도 확립했다. 그리고 수 13:8 을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땅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이 영토의 일부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후세대들이 이 땅을 전부 차지하려는 헌신을 잃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그분의 권위로 세운 인간 대표자들의 권위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2. 하나님의 언약(God's Covenant)

둘째로,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땅의 초기 경계가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확보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요단강 서편의 땅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속한 “기업(히브리어로 נַחֲלָה [나할라])”이라고 설명하셨다(수 13:6). 이전 강의들에서 언급했듯이, 이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맺은 그분의 언약에서 이 약속을 확증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단강 동편의 땅도 이스라엘의 기업이라고 불린다(수 13:8).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저자의 메시지는 오해의 여지가 없이 분명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는 이 땅에 대한 소유와 통제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거룩한 언약에 의해 확립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케빈 래비[Kevin Labby] 목사) 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그분은 그에게 네 가지 약속을 주신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다. 곧 그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곧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번창하게 하실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틀림없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것은 메시아가 유대 민족(곧 히브리인들)을 통해 올 것이라는 메시아적 약속이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약속일 뿐만 아니라 지파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약속,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그들 각자가 특별한 기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3. 모세 율법의 규정(Standard of Moses' Law)

셋째로, 이스라엘의 초기 경계에 대한 기록은 또한 그 경계가 모세 율법의 규정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요단강 서편의 기업 분배의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수 13:1)."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세가 신 20:16-17 과 같은 구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차지하라고 지시한 지역에 근거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단강 동편의 땅에 관하여 수 13:8 은 "모세가 그들에게 준

⁴ Rev. Kevin Labby is Senior Pastor of Willow Creek Church in Winter Springs, FL.

그들의 기업"이라고 언급한다. 모세의 율법은 민 32:33-42 과 신명기 3:8-17 과 같은 구절들을 통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땅들의 소유권을 이스라엘에게 부여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에게 애초부터 주어진 유산을 차지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청중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모세의 율법에 주의를 기울였다. 모세는 친히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했었다.

4.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God's Supernatural Power)

넷째로, 이스라엘 영토의 초기 경계를 다루면서 저자는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요단강 서편의 기업 분배를 다루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남은 가나안 주민]을 내쫓겠다."라고 말씀하셨다(수 13:6).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기업 분배를 다루는 에피소드에서 저자는 이 땅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승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언급했다. 수 13:10 에서 그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 대한 잘 알려진 기적적인 승리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수 13:12 에서 그는 "바산 왕 옥"에 대한 기적적인 승리를 회상했다.

이 두 에피소드 모두 원래 청중에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래야만 그들이 현실적으로 요단강 서편과 동편의 기업을 얻고 보유하기를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 온 이스라엘(All Israel)

다섯째로, 이스라엘의 초기 경계에 대한 기록은 또한 모든 이스라엘의 참여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수 13:7 은 요단강 서편의 땅이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수 13:8 은 요단강 동편의 땅이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의 기업이라고 언급한다. 온 이스라엘이란 주제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수 13:14 은 또한 레위 지파의 특별한 기업도 언급한다.

저자는 원래 청중에게 몇 번이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함께 뭉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하나님 백성의 하나됨은 요단강 양편의 땅의 초기 경계선 전체에 걸쳐 그들의 존재감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차지할 기업의 초기 경계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번 강의의 두 번째 주요 주제인 각 지파에게 분배된 구체적인 기업을 살펴볼 것이다. 이 땅들은 어떻게 각 지파에게 분배되었는가?

III. 구체적인 기업 분배(SPECIFIC ALLOTMENTS)

저자는 수 13:1-14 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식별하는 것을 넘어 수 13:15-21:45 에서 특정 지파들에게 분배된 특정 기업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분배는 일부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더 크고 더 나은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놀랄 것 없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불균형이 모든 종류의 불신, 학대, 분열, 심지어 지파들 사이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말한다. 저자는 원래 청중이 이런 종류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세우신 지파들의 특정 기업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저자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분배된 특정 기업에 대해 제시한 것을 평소의 방식대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그것의 기본 구조와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그것의 원래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그럼 먼저 여호수아의 이 부분(수 13:15-21:45)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자.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된 구체적인 기업에 대한 기록(수 13:15-21:45)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것은 인물, 지역, 도시, 읍과 마을 등의 긴 목록을 포함하고 있고, 많은 짧은 이야기와 빠른 방백도 산재되어 있다. 이 모든 다양성 가운데 주요 개념을 파악하려면, 그것이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 중 하나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분배한 지파들의 기업을 다루는 수 13:15-33 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에서 분배한 지파들의 기업을 다루는 훨씬 더 긴 기록인 수 14:1-21:45 이다.

요단강 동편에서 지파들이 분배받은 기업에 대한 기록은 다소 짧다. 그것은 수 13:15-23 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로 시작한다. 갓 지파는 수 13:24-

28 에 나온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므낫세 반 지파는 수 13:29-31 에 나온다. 그런 다음 저자는 레위 지파의 기업을 언급함으로써(수 13:14) 이전 단락(수 13:1-14)을 마무리한 것처럼 레위 지파의 특정 기업을 언급함으로써(수 13:32-33) 이 단락(수 13:15-33)을 마무리한다.

(헨리크 투르카니크[Henryk Turkanik] 목사)⁵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행하며 섬기는 지파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 지파는 어떠한 땅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 여호수아 13 장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분깃에서 제외되었고, 레위 지파가 받은 분깃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예물—이스라엘 온 백성이 드린 제물과 십일조—이었다.

이 구절들에서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요단강 동편의 어느 지역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묘사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분배가 충분히 명확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지파들에게는 그 구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겹치는 영토와 경계선에 대한 불일치를 고려하며 저자는 특정 지역, 심지어 성읍과 마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리차드 프랫[Richard L. Pratt, Jr.] 박사)⁶ 현대 기독교인들이 여호수아서 13-22 장을 읽을 때, 그들은 머리 속에 뚜렷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이 지파와 저 지파에게 분배된 경계에 대한 긴 목록으로 이 지파가 이 성읍을 받았고 저 지파가 저 성읍을 받았다는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묘사이다. 사실, 때때로 현대인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들은 그것을 보고 "도대체 이것이 종교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⁵ Rev. Henryk Turkanik ministers with the Church of Free Christians, Poland.

⁶ Dr. Richard L. Pratt, Jr. is Co-Founder and President of Third Millennium Ministries.

말한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서의 원래 배경에서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들이 개별 지파로서 그리고 통일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각 지파가 세상에서 존재할 곳을 분배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그들이 계속 보유해야 할 것이었다. 그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지표(指標, 지향점, orientation)가 되고 그들의 고향이 되고 조국에서 누리는 그들 몫이 되어야 했다.

여호수아서 13 장에 이어서, 저자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에서 지파들에게 분배한 구체적인 기업에 대한 훨씬 더 긴 목록(수 14-21 장)을 주었다. 이 자료는 6 개의 주요 단락으로 나뉜다.

1. 서두 요약(수 14:1-5 Opening Summary)

요단강 서편의 기업 분배를 다루는 긴 기록(수 14:1-21:45)은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고 그것이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이미 했던 일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전하는 요약(수 14:1-5)으로 시작한다. 이 단락은 또한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에서 행한 기업 분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한 번 이상[수 14:2, 5] 언급한다.

2. 결미 요약(수 21:43-45 Closing Summary)

요단강 서편의 기업 분배에 대한 기록은 이 서두 요약(수 14:1-5)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결미 요약(수 21:43-45)으로 끝난다. 저자는 수 21:43 에서 모든 지파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원래 청중에게 그 상황이 얼마나 이상적인지 나타내기 위해 저자는 수 21:45 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는 선언으로 이 전체 단락을 마무리했다.

(마이클 글로도[Michael J. Glodo] 목사)⁷ 우리가 여호수아서 13-22 장에서 열두 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약속들이 실현된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다는 수 21:45 의 말씀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그에게 땅을 주시고, 그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가리키며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땅이 완전히 분배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창세기 12 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안식하고 있는 것을 본다.

3. 유다(수 14:6-15:63 Judah)

이러한 2 개의 틀(서두 요약과 결미 요약) 사이에 4 개의 주요 단락이 있다. 이 주요 단락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지파인 유다(수 14:6-15:63)로 시작한다. 이 구절들에 따르면, 유다는 남쪽으로 네게브와 에돔 경계에 이르는 매우 큰 기업을 받았다. 유다의 경계는 서쪽으로 블레셋 땅에 이르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 애굽의 강까지 뻗어 있었다. 유다의 경계는 북쪽으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예루살렘(그 당시에 불린 이름은 "여부스")의 약간 북쪽까지 이르고, 동쪽으로 사해까지 이르렀다.

저자가 유다의 기업을 이 목록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며 유다가 얼마나 많은 기업을 받았는지를 부각한 이유는 이해할 만하다. 창 49:8-12 에 따르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룰 운명이었다. 저자는 먼저 유다의 저명한 용사인 갈렙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제공함으로써 유다에게 주어진 영광을 강조했다. 그런 다음 그는 유다의 영토에 있는 약 126 개의 성읍과 마을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것은 그가 다른 어떤 지파에 대해 열거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⁷ **Rev. Michael J. Glodo** is Associate Professor of Biblical Studies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in Orlando, Florida.

4. 에브라임과 므낫세(수 16:1-17:18, Ephraim & Manasseh)

요단강 서편의 남부 지역에서 분배받은 유다의 기업에 대한 기록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긴 기록, 즉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두드러진 기업에 대한 기록(여호수아서 16-17 장)을 발견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의 북부 지역에서 많은 땅을 받았다. 그들이 분배받은 기업은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뻗어 있었고, 에브라임은 므낫세 남쪽에 있었다. 이 지역은 모든 약속의 땅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었다. 이 외에도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이 지파들이 이스라엘 기업의 그렇게 크고 풍부한 부분을 소유하는 영광을 누린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창세기 48-49 장이 설명하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께 매우 충성했기 때문에 큰 영광을 누렸다. 그는 르우เบน을 대신하여 야곱의 장자가 되었고, 그의 두 아들을 통해 장자가 받는 두 몫의 기업을 받았다.

(제임스 해밀톤[James M. Hamilton] 박사)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들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이다. 야곱에게는 12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 중 하나인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팔렸다. 또 다른 하나인 레위는 열둘이란 수에서 배제되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자신을 위해 취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그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러 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그의 축복을 분명하게 선언했다. 이것은 마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열두 아들을 세는 데 있어서 레위와 요셉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을 나누어 열두 지파에게 분배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⁸ **Dr. James M. Hamilton** is Associate Professor of Biblical Theology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Preaching Pastor of Kenwood Baptist Church.

땅을 분배받으며 지파의 기업을 얻는다. ... 그 이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을 대표한다.

여호수아서 16 장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요셉의 땅에 대한 간략한 개요로 시작한 다음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한다. 이어서 여호수아서 17 장에 나오는 내러티브는 므낫세 지파의 기업으로 이동하며 민수기 27 장에 나왔던 슬로브핫의 딸들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 단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들의 큰 수효 때문에 더 많은 땅을 받은 이유에 대한 여호수아의 설명으로 끝을 맺는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탁월함이 인상적인 이유는 이 지파들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무렵에 온갖 종류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들을 어떻게 영예롭게 하셨는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5. 나머지 지파들(수 18:1-19:51 Minor Tribes)

저자는 유명한 지파들, 곧 유다 지파(14-15 장)와 에브라임 지파(16 장)와 므낫세 지파(17 장)에게 분배된 기업을 다룬 후에, 18 장과 19 장에서 나머지 일곱 지파에게로 눈을 돌렸다. 저자는 어떻게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 땅을 조사하게 했는지를 전하는 이야기(수 18:1-10)로 시작한다. 그리고 저자는 지파들이 그들 기업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특별한 가족 기업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기업 분배를 승인했음을 시사하는 이야기(수 19:49-51)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내러티브들 사이에 저자는 이스라엘의 일곱 지파, 곧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잇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를 위한 기업 분배를 기록하였다. 이 지파들은 기업을 받기는 했지만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만큼 많은 기업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후대에 이 작은 지파들은 그들의 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수 19:9 에서 저자는 친히 시므온의 기업이 실제로 “유다의 기업 중에서 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사실은 결국 시므온이 유다로 동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수

19:47 에서 저자는 또한 "단 자손의 영토는 그들에게서 상실되었다."라고⁹ 언급했다.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 18 장에서 더 자세히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이런 저런 불안정이 더 작은 지파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알고, 저자는 그의 청중이 이러한 분배된 기업을 인정하는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여호수아서를 썼다.

6. 레위(수 20:1-21:42 Levi)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의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한 일에 대한 기록은 20 장과 21 에 나오는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도 포함하고 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저자는 먼저 수 20:1-9 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도피성의 규례에 따라 지정된 도피성들의 이름을 밝힌다. 출 21:12-14 과 신 19:1-13 에 의하면, 이 도피성들은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법정이 그들의 유무죄를 결정할 때까지 보호를 제공했다. 그 다음으로 저자는 수 21:1-42 에서 여호수아가 민 35:6-34 에 나오는 모세의 지시를 따라 레위 지파에게 준 모든 성읍들을 나열한다.

도피성들을 포함한 레위인의 성읍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다른 지파들의 기업에 흩어져 있었다. 이로 인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모든 지파를 인도할 수 있었다. 불행히도 이러한 분배는 어려운 시기에 쉽게 잊혀졌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레위인들의 봉사가 국가의 안녕에 매우 중요하므로 그의 청중이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⁹ [역자 주] 히브리어 본문 וַיֵּצֵא גְבוּל־בְּנֵי־דָן מֵהֶם [바예체 그불-브네-단 메헴]은 직역하면 "And the territory of the Danites went out from them."이다. 이 문의 의미에 대하여 Howard(*Joshua*, NAC 5, 377, n. 232)는 "... which may mean, to use a modern expression, that it slipped through their fingers, i.e., that their enemies took it from them."이라고 풀이했다. 개역과 개역개정과 쉬운성경과 우리말성경의 "단 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는 취지의 번역은 오역이다. 새번역은 RSV 나 ESV 나 NIV 처럼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다."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은 NAB 처럼 "단 후손의 영토가 좁아서 모두 살 수 없었다."라고 번역했다.

지파들에게 분배된 이러한 구체적인 기업들을 다루는 부분(수 13:15-21:45)의 구조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의 원래 의미를 간략하게 요약해보자,

B.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현대 청중은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이 부분에 포함시킨 지리적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은 그들 국가의 초기 경계를 확보하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대해 세우신 구체적인 위치와 차이를 인식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라고 그들에게 요구했다.

저자는 평소 그의 스타일대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분배받은 구체적인 기업에 대한 기록(수 13:15-21:45)에서도 반복되는 다섯 가지 주제가 드러나게 묘사하였다.

1. 하나님의 권위(Divine Authority)

첫째로, 그는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구체적으로 분배하는 것에 대한 그의 기록(수 13:15-33)에서 저자는 세 번(수 13:15, 24, 29 [cf. 13:8])에 걸쳐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세움 받은 지도자인 모세가 그들에게 준 땅의 분배라고 언급했다.

저자는 또한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에서 받은 기업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지적했다. 그의 서두 요약[수 14:1-5]의 첫 절(수 14:1)에서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라세 아보트 하마토티]"이 땅을 분배했다고 기록했다. 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기업에 대한 기록에서 비슷한 어구를 사용했다(수 17:4). 그리고 제비 뽑아 나눈 나머지 일곱 지파의 기업에 대한 기록의 끝(수 19:51)과 레위 지파의 기업[구체적인 레위 성읍들]에 대한 기록의 서두(수 21:1)에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라세 아보트 하마토티]"이란 동일한 어구가 나온다.

이 외에도 저자는 레위 지파의 기업 중 도피성에 대한 기록을 시작할 때 그의 관습적인 방식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도입절(수 20:1)을 사용했다. 이것이 원래 청중 중 누구에게나 시사하는 바는 충분히 분명했다. 지파들의 이러한 특정한 기업에 대한 불만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에 대한 불만에 해당했다.

2. 하나님의 언약(God's Covenant)

둘째로,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구체적인 기업 분배를 다룰 때, 그는 또한 이러한 기업 분배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저자는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의 분깃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히브리어 단어 **קָנָה**[나할라]를 사용하여 "기업"이라고 언급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용어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수 13:32 에서 저자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이라고 불렀다. 수 13:33 에서 그는 레위인의 특별한 분깃을 그들의 "기업"이라고 밝혔다. 요단강 서편 땅의 기업 분배에 대한 서두 요약에서 그는 "기업"이란 용어를 사용했다(수 14:1, 2, 3). 그는 또한 수 14:9, 13; 15:20 에서 유다의 땅을 "기업"으로 언급했다. 그는 수 16:4 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을 "기업"이라고 했고 7 번 더 그렇게 불렀다. 그는 나머지 일곱 지파의 분깃을 17 번 정도 "기업"이라고 불렀다. 그는 기업 분배의 마지막 묘사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을 하며 어떻게 각 지파가 자기 "기업"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었는지를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단락의 결미 요약에서 수 21:43 을 통해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모든 땅"을 주셨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언급들은 모두 지파들에게 분배된 특정 기업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누구든지 그것들을 무시하면, 그들은 언약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 되었다.

3. 모세 율법의 규정(Standard of Moses' Law)

셋째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받은 구체적인 기업에 대한 보고에서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또한 모세 율법의 규정에 대한 순종도 강조했다. 이러한 강조는 요단강 동편의 땅에 대해 다룰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의 서두 요약은 수 14:2 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진술한다. 수 14:5 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을 나누었다고 덧붙인다. 수 17:4 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에 호소했다.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은 수 20:2 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따라야 한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레위 성읍들을 언급하는 부분(수 21:1-42)에 따르면, 그 성읍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수 21:2, 8)” 대로 레위 지파에게 분배되었다.

이 장들에 나오는 모세 율법의 규정에 대한 호소를 통해 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이러한 땅의 분배를 준수하도록 촉구했다.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백성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었다.

4.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God's Supernatural Power)

넷째로, 이 장들은 또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특정 기업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인정했다. 요단강 동편의 기업 분배에 대한 기록(수 13:15-33)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패배를 언급한다(수 13:27[cf. 13:10]). 그리고 우리는 브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이 죽임을 당한 것(수 13:22)과 바산 왕 옥에 대해 승리한 것(수 13:31)을 읽는다. 이 모든 사건은 요단강 동편에서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상기시켰다.

게다가 요단강 서편의 기업 분배에 대한 저자의 기록은 반복적으로 제비 뽑는 것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시사한다. 민 36:2 과 잠 16:33 과 같은 구절이 설명하듯이,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뜻을 초자연적으로 계시하시던 방식 중의 하나였다. 요단강 서편의 기업 분배에 대한 서두 요약에서 제비 뽑는 것이 언급된다(수 14:2). 그리고 제비 뽑는 것은 나머지 일곱 지파의 기업 분배를 다룰 때 11 번 정도 언급된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을 주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수 21:4, 10).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언급하는 저자의 목적은 식별하기 어렵지 않다. 원래 청중의 구성원들은 지파들에게 분배된 이러한 기업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분배가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베츠[T. J. Betts] 박사)¹⁰ 여호수아서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실제로 어떤 땅을 누가 얻을지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고, 여호수아 앞에서 누가 무엇을 얻을지 선택하더라도 어떤 불평등도 없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제비 뽑기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땅의 분배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땅을 공평하게 주셨다는 사실의 중요성이다. 나는 여기에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재산권을 지켜주실 것이고 기업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개념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이 땅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 아무도 이 땅을 영원히 잃을 수 없다. 심지어 그들이 땅을 팔아버렸다고 해도, 땅을 돌려주어야 하는 희년이 있는 시점이 돌아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들의 기업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권리이고, 하나님께서 이 경계들을 지키고 계시며, 아무도, 심지어 왕조차도, 와서 "이것은 당신의 땅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 왕들이 그러려고 해보았지만 율법에 의해 그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¹⁰ **Dr. T. J. Betts** is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5. 온 이스라엘(All Israel)

다섯째로, 이 책의 앞 장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된 구체적인 기업에 대하여 다루는 이 장들은 또한 온 이스라엘의 포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요단강 동편의 기업 분배에 대한 기록이 각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받은 땅을 명시하는 방식에서 이러한 강조를 볼 수 있다. 요단강 서편의 기업 분배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파에게도 분배된 것을 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것은 심지어 레위 지파를 위해 구별된 성읍들조차도 명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대한 저자의 세심한 관심은 온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거주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믿음을 강화시켰다. 여호수아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몇몇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에게 흡수되어 있었다. 다른 지파들은 여기저기서 적들에게 영토를 빼앗겼다. 앗수르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정복할 무렵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남은 자들만이 그들의 지파 기업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저자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추구해야 할 이상을 주장했다. 온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정당한 분깃을 차지해야 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기업의 초기 경계와 특정 지파들에게 분배된 구체적인 기업을 검토함으로써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번 강의의 세 번째 주요 단계인 이스라엘의 거국일치를 살펴볼 것이다.

IV. 거국일치(NATIONAL UNITY)

수세기 동안 몇 번이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분열하고 서로에게 등을 돌렸다. 저자는 지파들이 한 민족으로 뭉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데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저자는 여호수아 시대에 심각한 갈등이 이스라엘의 거국일치를 위협했던 때에 대한 이야기(22 장)로 책의 두 번째 주요 부분(13-22 장)을 마감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듯이, 여호수아서는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과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 사이에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주요 구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 지리적 구분은 여호수아 시대에 문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요단강 양편에 있는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거의 일어날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을 다루는 책의 두 번째 주요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과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이 하나가 되도록 이끌었는지 회상했다. 이 사건은 그의 원래 청중이 그들 자신의 시대에 비슷한 긴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국일치를 탐구할 때 동일한 패턴을 따르며 먼저 이 단락(수 22:1-34)의 구조와 내용을 살핀 다음 그것의 원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이 장의 구조와 내용을 고찰해보자.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여호수아서 22 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거국일치에 대한 이야기는 다섯 가지 주요 단계로 전개되는 꽤 간단한 내러티브이다. 그것은 수 22:1-10 에서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극적인 문제로 시작한다.

1. 제단의 건축(수 22:1-10 Construction of Altar)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편에서 승리를 거둔 후,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들의 기업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그들은 자기 기업으로 돌아오면서 요단강 근처에 크고 인상적인 제단을 쌓았다.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 제단이 모세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대신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가정했다.

2. 전쟁의 위협(수 22:11-14 Threat of War)

내러티브의 긴장은 전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는 수 22:11-14 에서 고조된다.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세운 제단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한 나머지,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은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전쟁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먼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열 지파의 족장들로 이루어진 대표단을 파견하여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과 대면하게 했다.

3. 대면(수 22:15-31 Confrontation)

수 22:15-31 에 나오는 다소 긴 이야기의 전환점은 이 대표단과 요단강 동편 지파들 간의 대면을 전하고 있다. 대표단은 새로 쌓은 제단이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요단강 동편 지파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고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국가로부터 배척할까 봐 두려워서 그들도 다른 지파들과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었다. 이에 대표단은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여호와께 불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뻐하였다.

4. 위협의 종결(수 22:32-33 Cessation of the Threat)

내러티브의 하강 국면은 수 22:32-33 에 나오는 전쟁 위협의 종단으로 드러난다. 대표단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보고했고,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즉시 전쟁에 대한 말을 중단했다.

5. 제단의 명칭(수 22:34 Naming of Altar)

이야기의 극적인 긴장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은 수 22:34 에서 제단의 명명으로 나타난다.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은 요단가에 쌓은 그들의 제단을 “증거, 히브리어 [엇]”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도를 보여주었다. 그들이 설명했다듯이, “그것은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되시는 증거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은 그들의 명예로운 동기, 성막에서만 제사드리려는 그들의 의도, 이스라엘의 거국일치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확증했다.

이스라엘의 거국일치에 대한 이 내러티브의 기본 구조와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것의 원래 의미에 대한 몇 가지 논평을 해보자.

B.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저자가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주요 부분을 22 장의 내러티브로 마감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이야기는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단결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당연히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은 그들이 판단하기에 하나님께 노골적인 반역을 한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을 처벌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들은 현명하게 상황을 조사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민족이 하나가 되려는 뜻을 알고 매우 기뻐하였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비슷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원래 청중이 따라야 할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던 다섯 가지 동일한 주제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는 저자가 미래 세대들을 인도하기 위해 거국일치에 대한 그의 내러티브를 디자인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1. 하나님의 권위(Divine Authority)

첫째로, 하나님의 권위라는 주제는 제단을 쌓은 것에서 나타난다. 수 22:1 을 통해 우리는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인 여호수아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게다가 수 22:13 을 통해 우리는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위자인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요단강 서편 지파들의 대표단을 인도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저자는 이 이야기에 대한 원래 청중의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 여호수아와 비느하스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은 이것을 자기들과 무관한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위자들의 참여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시대에 거국일치를 유지하는 데 적절하게 이 사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2. 하나님의 언약(God's Covenant)

둘째로, 여호수아서 22 장에 나오는 거국일치에 대한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도 다룬다. 이 주제는 특히 요단강 서편의 대표단과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 사이의 대면에서 전면에 나온다. 우리가 수 22:25, 27 에서 읽을 수 있듯이,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이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여기 “분깃”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קָנָה[헬레크]를 번역한 것이다. 수 18:7 과 수 19:9 과 같은 구절들이 보여주듯이, 저자는 “분깃”을 뜻하는 קָנָה[헬레크]를 “기업”을 뜻하는 단어 נָחַל[나할라]와 밀접하게 연결시켰다. 이 강좌를 통해 여러 번 보았듯이, “기업”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으신 언약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은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이 그들을 조상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완전한 상속자로 대우하는 것을 보장해 주기를 원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원래 청중을 향한 거국일치에 대한 그의 요구를 각인시켰다. 그는 원래 청중에게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흩어져 사는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뿌리를 둔 약속의 땅에서 분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3. 모세 율법의 규정(Standard of Moses' Law)

셋째로, 이스라엘의 거국일치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또한 모세 율법의 규정을 강조한다. 내러티브의 첫 단계(수 22:1-10)에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삼가 지켜 행하라(수 22:5).”고 촉구했다. 지파들 간의 대면(수 22:15-31)에서 요단강 서편의 대표단은 “너희를 위하여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를 거역하지 말라(수 22:19).”고 경고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수 22:29 에서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거역하지 아니하리라.”고 외치며 모세의 율법의 규정을 시인했다.

모세 율법에 대한 저자의 초점은 거국일치를 추구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 조항을 부여했다. 그의 청중이 민족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만 그렇게 해야 했다.

4.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God's Supernatural Power)

넷째로, 거국일치에 대한 내러티브는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 주제는 특히 요단강 서편의 대표단과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 간의 대면에서 나타난다. 수 22:17 을 보면, 대표단은 이스라엘이 브올에서 범죄했을 때 “여호와와 회중에게 재앙이 임하였음”을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에게 상기시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고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느하스는 요단강 동편 지파들의 설명을 듣고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안다(수 22:31).”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복을 인정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저주와 복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원래 청중에게 그들 시대에 거국일치에 대한 요구가 그저 인간의 일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켰다. 여호수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역시 거국일치라는 목표를 추구하거나 추구하지 않음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복이나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이었다.

5. 온 이스라엘(All Israel)

다섯째로, 거국일치에 대한 이 내러티브가 또한 온 이스라엘이란 주제도 부각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어조는 이야기의 첫 단계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양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형제들(수 22:3, 7, 8)”이라고 언급할 때 설정되었다. 대면의 장면에서 대표단은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의 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인정했다(수 22:17, 20). 그리고 전체 내러티브는 제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사이의 증거(수 22:34)”라고 명명되며 이스라엘의 신앙의 하나됨을 선언하는 것으로 끝난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의 긴장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일치에 대한 깊은 헌신 때문에 해소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원래 청중에게도 그들의 시대에 거국일치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지금까지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에 대한 저자의 설명이 땅의 초기 경계(수 13:1-14),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된

구체적인 기업(수 13:15-21:45), 지파들 사이의 거국일치의 확립(수 22:1-34) 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번 강의의 마지막 고찰 사항, 곧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을 다루는 이 부분(수 13-22 장)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V.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여호수아서 13-22 장의 많은 세부 사항은 원래 청중에게 매우 실용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저자는 청중이 그들 조상에게 분배된 최초의 기업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구체적인 분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국일치를 유지했는지 본받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에 대한 이러한 실용적인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기업의 훨씬 더 큰 성취를 향한 한 단계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호수아서 13-22 장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을 다룰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의 세 단계에서—즉 그분의 초림을 통한 **개시** 단계와 교회 역사 전반에 걸친 **지속** 단계와 그분의 재림을 통한 **완성** 단계에서—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을 성취하시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왕국의 개시에 비추어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A. 개시(INAUGURATION)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초림을 통해 메시아 왕국을 개시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흩어져 살면서 수백 년을 보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조차도 연달아 이방 나라의 압제 아래서 살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기업을 되찾을 것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기업이 메시아의 통치 아래 확장되어 온 세상을 포함하게 될 때를 고대했다.

(그렉 페리[Greg Perry] 박사)¹¹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동산뿐만 아니라 온 땅을 정복할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땅이란 선물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온 땅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확장하라는 사명의 메아리이다. 우리는 다윗 왕조를 통해 그것을 엿보기 시작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시 2:8).”라는 말씀과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시 72:8, 11)”라는 말씀은 이를 시사한다.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의 역할이 만민에게 복이 되는 것에 대한 이사야의 환상에서도 그것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2-3]”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2 장에서 어떻게 만방(모든 민족)이 이스라엘로 모여들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증언할 것인지를 읽는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을 통해 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회복시키셔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끝 부분에서 마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28:19-20).”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다시 어떻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인지를 본다. 이것은 이사야 43 장을 반영하며 “가서 만민을 위한 구세주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땅은 온 땅과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을 상징한다.

¹¹ **Dr. Greg Perry** is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and Director of City Ministry Initiative at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이 바로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고 설명한다. 히 1:2 이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임명하셨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롬 4:13 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상속자”이시다. 게다가 갈 3:29 과 같은 구절이 말하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상속자]이다.” 롬 8:17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된 기업의 경계 전반에 걸쳐 사역하셨다고 전하는 이유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강 서편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모두에서 사역을 했다. 그들은 때때로 요단강 동편의 지역에서도 사역을 했다. 이러한 사역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자기와 함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신실한 남은 자들을 자기에게 모으셨다. 이 외에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행 2:5 이 말하듯이 “천하 모든 나라에서” 그를 따르기 시작한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셨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기업과 그리스도 왕국의 개시 사이의 가장 중요한 연결은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이다. 엡 1:14 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언급했다. 고후 1:22 과 5:5 에서도 바울은 성령님을 “보증”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래에 받을 기업의 첫 번째 몫으로) 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창 1:2 이 시사하는 것처럼 태초에 창조에 질서를 가져온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 44:3-4 과 같은 구약의 예언들은 하나님의 영이 또한 메시아의 시대에 피조 세계의 갱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어진 성령님이란 선물은 이 새롭게 된 피조 세계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개시될 때 부여된 우리의 전 세계적인 기업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호수아서 13-22 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요 주제들은 우리에게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기업을 미리 맛보는 것을 반추할 기회를

제공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권위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였듯이,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권위로 성령님 안에서 신자들에게 기업을 분배했다. 여호수아의 땅 분배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였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도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성취 안에 들어있는 것이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분배된 이스라엘의 기업이 모세 율법의 규정에 부합하였듯이, 모세 시대 이후에 더 많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 보면 성령님을 주신 것은 모세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결과였다. 이스라엘의 기업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달려 있었듯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 때 훨씬 더 큰 초자연적인 능력이 성령님을 주시는 일에 작용했음을 분명히 했다. 여호수아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상은 그리스도 왕국의 개시 때 확장되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도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업의 보증금을 받았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을 다루는 여호수아서 13-22 장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왕국의 개시로 향하게 하는지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것이 교회 역사 전반에 걸친 그리스도 왕국의 지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B. 지속(CONTINUATION)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계속 복을 주시며 그분의 영을 통하여 다가올 세상을 미리 맛보게 하신다.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확보하여 전진하라고 요구하였듯이,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전진하라고 요구한다. 갈 5:16 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하고, 엡 5:18 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여호수아서의 원래 청중이 각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을 인정해야 하였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 받은 비슷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고전 12:4 이 가르치는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다.” 더구나 여호수아서의 원래 청중이 약속의 땅의 기업에서 함께 살면서 거국일치를 추구하도록 요구받았듯이, 엡 4:3 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서 13-22장에서 다섯 가지 주요 주제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할 기회를 갖는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기업 배후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기업을 추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최초 기업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때문에 성령께서 구속의 날을 위해 우리를 인치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모세 율법의 규정에 순종하여 그들의 최초 기업을 받았듯이,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신약의 계시에 비추어 적용되는 가운데 성령님의 기업 안에 살고 있다. 이스라엘의 기업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주어졌듯이,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민족적 기업에 한 몫을 가졌듯이, 지상의 모든 족속과 나라에서 온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성령 안에서 동일한 기업을 공유한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을 다루는 부분(수 13-22 장)에 대한 기독교적 적용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의 개시 때 하신 일과 그분의 왕국이 지속되는 되는 동안 우리의 현재 상황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왕국이 완성될 때 우리가 받을 기업에 대한 소망도 강화시킨다.

C. 완성(CONSUMMATION)

계 21:1 에 따라,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다. 타락한 피조 세계는 불에 의해 정련될 것이고, 악은 제거될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은 피조 세계 전체에 걸쳐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피조 세계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닐 것이다. 계 21:7 을 통해 우리는 그 큰 날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고 선언하실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 세계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셰리프 젠디[Sherif Gendy] 목사)¹²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이라는 주제는 중요한 주제이며,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에 대한 약속이 부분적으로만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많이 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롬 4:13 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는 말씀을 읽는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세상, 곧 온 세상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 그리고 이 약속들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그 자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약속들을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성취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땅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시대에 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전히 성취하실 더 크고 더 넓고 더 완전한 땅의 작은 그림에 불과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리스도는 가나안에서만 다스리지 않으시고 온 땅,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호수아서 13-22 장에 나오는 다섯 가지 주요 주제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될 때 이루어질 일로 향하게 한다. 하나님의 권위가 여호수아가 그 시대에 행한 일을 뒷받침했듯이, 예수님께서서는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분부를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행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기업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확보되었듯이, 우리의 마지막 기업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의해 확보된다. 여호수아가

¹² Rev. Sherif Gendy is Director of Arabic Production a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분배하였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것이고 장차 올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규정을 이행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기 기업을 소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에서 비롯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전에 볼 수 없던 식으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기업이 온 이스라엘을 포함하였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장차 올 세상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VI. 결론(CONCLUSION)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주요 부분(13-22 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을 탐구했다. 우리는 저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기업의 초기 경계를 우선시하며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땅을 묘사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또한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된 구체적인 기업을 고찰했다. 그리고 우리는 저자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했는지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이의 거국일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왕국의 개시와 지속과 완성에 비추어 여호수아서의 이 부분(13-22 장)에 대한 기독교적 적용을 살펴보았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원래의 청중에게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인시켰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똑같이 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확보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루하루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기업을 미리 맛보며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날을 고대한다. 그 날,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로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실 것이고, 그분을 신뢰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피조 세계의 위대한 기업을 영원히 나누어 주실 것이다.